

대홍수 때 사람을 묶었던 굴참나무



지정번호 대구-8-12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대구
수령 310년
수고 23m
흉고둘레 4m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비슬로 1788-1
35° 46' 26.28" N
128° 25' 17.88" E

하천이 인접한 곳에서 노거수로 있는 보호수(대구-8-12) 굴참나무는 금포시장 건물 사이의 빈터에 자라고 있다. 굴참나무의 나이는 310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23m, 가슴높이둘레는 400cm, 밑동둘레는 410cm 가량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17m 정도이다. 원줄기는 높이 2.5m 정도에서 굵은 가지가 몇 갈래로 갈라져 있으며, 썩은 위쪽 가지가 크게 절단된 후에 새로운 가지가 나와 높이 자라고 있다. 현재 한쪽 원줄기가 종전재 처리로 외과수술을 하였으며, 나뭇잎이 병들어 있는 상태이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대홍수의 피난과 관련이 있다. 굴참나무는 배씨성을 가진 한 주인이 심었다. 배씨는 아주 오래 전에 장마철이 되면 종종 마을에 대홍수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그러나 현재 살아남아 있는 것은 이 굴참나무 한 그루뿐이다. 굴참나무는 심은 목적에 맞게 홍수방지 역할을 충분히 하였는데, 100여 년 전 마을에 대홍수가 났다. 마을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어느 어르신이 굴참나무에 밧줄을 매달고 사람을 묶기 시작하였다. 그 덕분에 여러 사람이 큰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피신할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주인을 구해준 굴참나무를 마을의 당산목으로 신성하게 여겨 정월대보름에 너럭바위 위에 제물을 놓고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굴참나무가 있는 침터에는 너럭바위의 선사시대 고인돌 상석(뎡개돌)이 있는데, 상석은 제를 지내기 위하여 가져다 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바위가 온전하였으나 나무뿌리가 자라면서 깨졌다고 말하고 있다. 주민이 시멘트로 상석을 접합하기도 하였으나 깨진 돌의 간격은 더 벌어지고 있어 파손될 위험이 있다. 한때 굴참나무 아래에 있는 상석에 성혈(性穴)로 보이는 알 구멍 수십 개가 발견되어 학계의 관심을 끌기도 하였다. 민속에서 알 구멍, 알 바위, 알 뎡 등으로 불리는 성혈은 일반적으로 다산을 기원하는 주술적 의미와 별자리 등을 상징한다.

